

잠금장치의 상징과 조형성을
이용한 장신구 연구

백현 M2012158

순서

머릿글

연구 목적

몸글

잠금장치의 종류

자물쇠의 상징과 의미

현대인의 정체성

맺음글

결론

머릿글

연구목적

문고리나 물건 함에 손가락을 끼워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안이 되던 시대가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열 수 있는 옛사람들의 허술한 자물쇠는 인간의 양심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물쇠와 열쇠는 더 이상 사람의 양심을 믿지 않는다. 지켜야 할 대상의 재산가치가 클수록 자물쇠와 열쇠의 구조는 점점 더 비밀스럽고 복잡해진다. 이처럼 잠금으로서 감추고 안전하게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은 오늘날 상상을 초월하는 첨단 자물쇠들을 선보이기에 이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물쇠의 형태는 잠길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 지켜야 할 대상의 크기나 쓰임새, 재산가치 등에 따라 자물쇠는 단순해지거나 더 복잡하고 화려해지기도 한다. 잠금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지키고 감추어왔던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이나 중요한 물건의 보관함 등에 그치지 않는다. 중세시대, 십자군전쟁 당시 영주나 기사들이 장기간 원정에 나서면서 부인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철속옷에 쇠를 채우고 떠났다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인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자물쇠도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오늘날에는 자동차나 컴퓨터 등 첨단 물건들의 구조와 가치에 걸 맞는 다양한 자물쇠와 열쇠를 어렵지 않게 별견할 수 있다.

무언가를 지키는 잠금장치가 발전하고 있는 사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빼앗으려하는 방법 또한 나날이 발전하였다. 실제 존재하는 물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까지도 멋대로 들여다보고 조종하는 세상이 되었다. 또한 여러 매체들을 통한 직간접적인 광고들과 선동으로 인해 내 주관을 뚜렷이 가지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소중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조절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다.

장신구는 사람의 몸에 착용하는 것인 만큼 몸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 그중 특히 브로치는 심장의 겉면, 즉 가슴에 착용하는 장신구로서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장신구는 자물쇠의 '지키는 물건'이라는 상징과 함께 특유의 조형성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 마음, 생각들을 지키고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브로치이다.

몸글

잠금장치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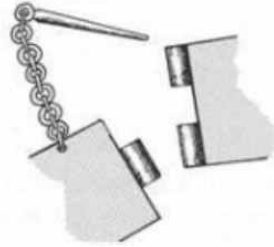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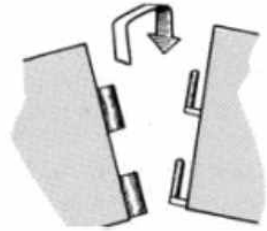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이어주거나 고정하는 여러 가지 잠금장치 중에는 금속공예 분야에서 개발되고 발전된 것들이 많다. 금속이라는 재료가 정교한 열개나 힘을 받는 잠금장치에 적합하고, 전통적으로 많은 금속공예품들이 기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잠금장치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시각적으로 독특한 구조미를 보여줌으로서 특유의 정교한 느낌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금속과 금속 혹은 다른 재료를 이어주는 방식은 열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나뉜다. 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땀질과 용접과 같은 방법이고, 열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은 리벳, 나사, 난집, 난발, 접착제와 같은 방법이 있다. 이러한 이음 방식은 가열할 수 없는 재료(나무, 돌), 혹은 금속의 종류가 다르거나 땀, 용접을 이용할 수 없는 재료를 서로 이어주기 위해 쓰는 이음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형태적으로도 여러 가지 독특한 조형성을 가지게 되며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금속을 이용한 이음장치 중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경첩, 물림장치의 몇 가지 유형과 걸림 장치에 대해 알아본다.

경첩

경첩은 물체의 두 부분을 서로 이어, 이들이 연결된 채 일정한 방향과 각도로 움직이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기물의 몸체와 뚜껑, 팔찌,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의 이음새에 쓰인다.



핀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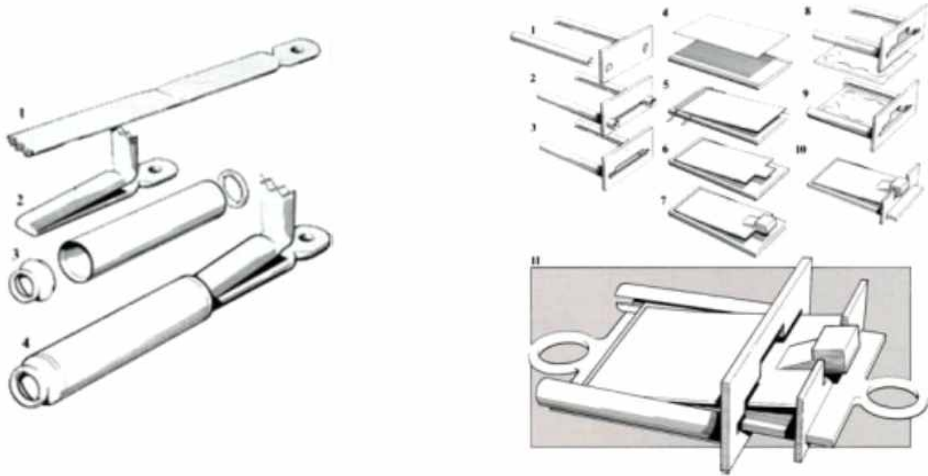
의상에 부착되는 브로치는 뒷면에 탄성이 있는 핀과 이를 고정시키는 걸림 장치를 필요로 한다. 뒷장식 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기성제품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도를 담아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하기도 한다.



걸림 장치

금속과 금속을 연결하는 걸림 장치에는 간단한 고리에서부터 매우 구조적인 장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 간단한 것으로는 다음 그림들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으며, 복잡한 예로는 혀 장식을 들 수 있다. 그밖에 여러 가지 걸림 장치들이 있

다. 목걸이와 팔찌 같은 장신구에 주로 쓰이며 착용하였을 때 편안하며 작동하기 쉬워야 한다.



잠금장치는 주로 눈에 띄지 않고 작게 설치를 하지만 다음은 기능과 함께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장식적 효과도 낼 수 있는 걸림 장치이다.



자물쇠의 상징과 의미

자물쇠는 ‘잠그다’의 고어인 ‘즈므드’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것이 즘, 자물의 형태로 변하고 여기에 쇠가 더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물쇠는 문이나 서랍을 잠그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예로부터 도난 방지 및 비밀유지의 용도 외에 가구장식의 미적 효과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다. key word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양에서는 열쇠에 대한 강한 상징성이 실제로 열쇠와 자물쇠의 구조에서도 적용되어 자물쇠보다는 열쇠에 중점을 둔 계폐구조로 발전되어 왔다.

잠금에는 소유를 지키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위험 대상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잠금과 감금도 있다. 수갑이나 감옥 등이 그것의 한 형태로 사용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악한 행동을 불리일으키는 인간의 탐욕까지 잠글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없는 모양이다.

오늘날의 자물쇠가 단호하고 냉랭하다면 옛 사람들이 사용했던 자물쇠는 정감이 있다. 특히 현재 우리 일상 속에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문양 자물쇠와 물상형 자물쇠는 언뜻 보면 무언가를 지키는 도구라기보다는 장식품처럼 느껴져 옛사람들의 여유가 함께 느껴진다. 장수, 부귀, 다남, 입신양명, 만복 등을 상징하는 물고기, 거북이, 박쥐 등 동물의 형태를 본뜨거나 매화, 연꽃 문양 뿐 아니라 부귀다남 수복강령 등 장수와 복록을 뜻하는 글자를 직접적으로 새겨 넣어 그에 대한 기원을 담았다. 자물쇠와 열쇠는 다양한 모양새만큼이나 많은 의미와 정서를 가지고 있다. 옛사람들의 정감 넘치는 자물쇠에서부터 문명과 함께 발달한 첨단 자물쇠와 최근에 연구소 등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생체 인식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소유를 지켜주는 장치는 지켜야 할 대상에 걸맞게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다. 자신의 소유를 지키려는 욕망과 타인의 소유에 대한 탐욕이 서로 겨루어 더욱 기능적이고 다양한 잠금장치를 탄생시켜왔으며 잠금장치의 진화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공동체 생활을 하던 원시시대에는 잠그거나 감출 필요가 없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만의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자물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서양이 열쇠를 중심으로 한 계폐문화라면 동양에서는 열쇠보다 자물쇠를 중요하게 여겨왔다. 어떤 물건의 중앙, 혹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자물쇠를 중요

하게 여겨왔다. 어떤 물건의 중앙, 혹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자물쇠를 채움으로써 그 물건에는 주인이 따로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타인의 접근을 경계하는 상징적 보안성을 부여하였다. 이는 열쇠가 아닌 사람이 궁극적인 자물쇠라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소유하지 못한 것을 탐하는 인간의 마음과 소유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구의 충돌은 인간이 살아가는 한 계속될 것이며, 바로 그 팽팽한 긴장의 중심에 자물쇠가 있다.

현대인의 정체성

현대사회는 일반적으로 기계와 기술과 정보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로 전문화, 조직화 되어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를 말한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생산공정의 기계화를 바탕으로 능률성의 원리에 의해 모든 것을 합리화, 기계화, 집단화, 효율화, 표준화, 집중화시키는 산업사회로 변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한결 편안해지고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를 만들었다.

특히 컴퓨터의 발전은 대중매체와의 융합으로 현대인들이 모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도의 발달된 정보화로 인해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들을 기준 없이 받아들임으로 인해 생각이 획일화 되어 개성을 상실한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기계화된 생산방법으로 인해 모든 것을 효율화, 합리화, 기계화, 집단화 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때문에 이윤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며 모든 것을 상품화 하려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사회에서 원하는 자신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이 중심이고 사회가 부수적인 것처럼 느껴졌으나, 현재는 사회가 중심이고 개인은 그 사회의 일부분인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개인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채 단지 사회속의 한 구성요소로서 자신을 집단에 맞추고 오로지 그 일원으로서 자신을 생각하게 된다.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사회적 가치기준의 획일화로 물질만능주의적 사고, 산업화, 도시화, 상위계층과 대중의 갈등으로 인한 인간의 무력감과 서로의 경쟁 심리를 유발시켜 주변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켰다. 기계로 인한 생활의 편리, 기능에만 의존한 사회조직, 기계에 맞춘 업무수행, 개성 없는 대중문화 같은 것들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의 소리를 외면한 채 살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복을 쫓아 늘어난 무한한 욕구가 오늘날과 같은 사회로 나아가게 만듦으로서 사람들은 약해지는 자아와 함께 무력감과 불안을 느끼며 하루하루 초조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맺음글

결론

이 연구는 원래 장신구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 되었다. 평소에 다루어 보고 싶었던 주제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실제 작업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바탕이 되는 이론만 발전시킨 상태이다.

평소 상자나 다른 물건을 만들 때, 열고 닫는 구조가 필요하면 항상 잠금장치를 숨기고 안보이게 하기에 바빴다. 또한 평소에 볼 수 없는 특별한 잠금장치를 연구 하여 적용 했을 때는 그것을 보여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때문에 잠금장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조형성을 끄집어내어 장신구로 표현 한다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현대인은 겉으로는 개성을 말하고 있지만 실은 다른 사람을 따라 하기 급급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 가슴에 단 자물쇠의 상징성을 이용하여 표현한 브로치는 이리저리 훑쓸릴 수 있는 자신의 중심과 정체성을 지켜준다.

실제 작업을 진행시키기에만 급급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 만들 것에 담길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은 신선하면서 꼭 필요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이 내용을 담은 장신구를 꼭 진행시키길 내 자신에게 바란다.

참고자료

잠금의 욕망 / 월간 디자인 / 정효정 / 2004년 2월

인체 형상을 장식적 잠금장치로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 이주희 /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 2007년

현대인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조형 표현연구 / 오소연 / 경희대학교 아트 퓨전디자인대학 / 2011년